

# 현대삼호중 저가 수주·인도 포기...3년째 적자경영

## 구조조정 압박...떨고 있는 전남 조선·철강·화학산업

정부가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5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선박 수주 급감, 철강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 미국 화학업체 성장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현재 전남의 3대 주력산업은 기업수 797곳, 종업원수 6만2058명, 생산액 109조원, 수출액 295억5000만 달러 등을 보이고 있다. 종업원 수는 전남 제조업의 71.7%, 생산액은 93.4%, 수출액은 97.8%를 차지한다. 전남 경제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5대 업종 수익성 악화, 부실화 가능성 제기=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태풍이 조만간 휘몰아칠 전망이다. 그중 핵심은 최근 유동성 문제를 드러낸 해운과 조선업이다. 수주권에 달하는 적자에 수주 및 운임 급락 등이 겹치며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들 5대 업종에 종사하는 직간접 인력만 100만명을 넘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 대불산단 조선기자재기업들

### 하청단가 하락 도산 공포

### 철강·석유화학 자구책 안간힘

### 전남도 신사업 발굴 총력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비핵심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 또한 조만간 채권단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 상환도 어려운 한계기업의 수가 지난 2009년 2698개에서 2014년 3295개로 597개 증가했으며, 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내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산업 분야에 대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도내 조선 부문 가장 심각...철강·석유화학도 안심 못해=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하지만 도내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의 수주잔량도 1년간 작업물량 정도이고,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기자재기업들

은 낮은 하청단가로 경영상태 악화가 누적돼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저가 수주, 인도 취소 등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조선은 지난 2015년 10월에서야 법정관리를 졸업해 고용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불산단의 조선기자재기업은 낮은 임가공 위주, 매년 하청단가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철강 부문은 중국발 철강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심화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발적 사업재편, 일부 내수경기 회복, 무역구제조치 등으로 국내업체들의 상황이 개선 중이다. 석유화학 부문은 선전중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 업체가 1분기에만 1조2000억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저유가로 인해 경쟁사들의 증설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향후 전망도 밝다. 다만 2018년부터 값싼 셰일가스를 원료로 쓰는 미국 화학 업체들이 대거 공장 가동에 들어가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요소도 있다.

◇전남도, 신사업 부문 발굴 및 육성에 총력=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 및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화학 소재 산업으로 고도화 및 제품의 차별화를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도내 관련 기업들의 향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선박 건조작업중인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602억 원을 들여 광양만권 세풍산단 내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조선 부문에서는 레저선박 부품·기

재 등 신규 수요 적극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해양레저장비산업 등으로 사업다각화 및 구조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철강 부문은 부산물인 슬래그, 이산화탄

소 등 다양한 가능성을 활용한 제품, 고강도 강 소재 가공기술 확보로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을 선점해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복안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18개 상임위원장 누가 맡나...여야 치열한 물밑 신경전

## 새누리 7~8, 더불어민주당 7~8, 국민의당 2~3개 예상

20대 국회 출범을 40여일 앞두고 여야 3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수많은 산하 기관별로 분류된 상임위를 이끌면서 각종 법령 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국 흐름도 좌우될 수 있어 여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겸임 상임위원 운영

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와 특별위원 예결특위, 윤리특위를 포함해 총 18곳이다. 상임위원장직 배분과 관련된 규정은 명확히 없지만, 통상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배분된다.

관례대로 단순 의석수 비율로 나누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8개, 국민의당 2~3개 정도의 상임위원장 자리

가 배분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국회의장단 구성 협상과 맞물려 있는 데다 16년만의 여

소아대 정국, 20년만의 제3당 원내교섭단체 등장 등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국 흐름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당이 산자위원장과 국토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 추가로 농해수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점에서 국민의당 차지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가

운대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의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맡은 바 있고 천정배, 박지원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바 있어 상임위원장 급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역 의원들 가운데서는 3선인 장병완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가는 마지막 게이 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힘 잃은 '김종인 추대론'

## 더민주 전대 강행·연기 놓고 충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서 '김종인 합의추대론'이 힘을 잃어가면서 전당대회 강행론과 전당대회 연기론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4·13 총선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계속 대표를 맡도록 하자는 이른바 '합의추대론'은 전대 출마 후보군을 중심으로 민주적 정당의 모습에 맞지 않다는 비판론이 속출하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마저 당내 여건에 비춰 합의 추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대는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에서는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김 대표의 경선에 나서지 않고 박영선, 추미애, 송영길, 김진표, 이인영 당선자 등이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연기론도 제기되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전당대회를 치르면 당내 갈등이나 계파 간 마찰이 표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난파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감안하면 김 대표가 추가로 당의 노선 재설정이나 정책 정비에 나설 수 있는 역할을 쥐어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에서도 전대 연기론이 점차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당원 및 대의원 등 전대를 치를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은 양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권을 놓고 무한 경쟁을 치르다가는 국민의 지지가 모이는 시점에 약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전대 연기가 안철수 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원내대표를 놓고는 합의추대론과 경선론이 충돌하면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 주자로는 주승용, 김동철, 장병완, 유성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당선인 교문위·농해수위 가장 선호 산업통상위 3명 3위

20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24일 광주·전남 지역국 국회의원 당선인 18명 중 16명(박준영·이용주 당선인은 연락이 안 됨)을 대상으로 선호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교문위와

농해수위를 선택한 당선인은 각각 4명(25.0%)이었다. 이어 3명(18.8%)의 당선인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선호했다.

박주선·주승용·이정현·송기석 당선인이 교문위를, 황주홍·이계호·윤영일·정인화 당선인이 농해수위를 각각 꼽았다. 또 장병완·최경환·손금주 당선인은 산업위를 선택했다. 이는 광주는 교육문화도시,

전남은 농도라는 측면이, 산업위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유리한 상임위라는 측면이 각각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외에 국토교통위(천정배)·법제사법위(박지원)·기획재정부위(김동철)·안전행정부위(권은희)·미래창조정부위(김경진)를 각 1명의 당선인이 선호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i총행기자 golee@



##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술철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운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